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명 및 직위	김은경 국제개발협력팀장, 이수연 평등문화정책센터장, 곽서희 연구원
출장기간	2014. 11. 16(일) – 11. 19(수) [2 박 4 일]		출장지	태국 방콕
출장목적	<input type="checkbox"/> 아태지역 국별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한 UN ESCAP 설문조사 결과 자료 수집 <input type="checkbox"/> Post-2015 개발의제와 젠더이슈에 관한 UN의 최근 동향과 자료수집 <input type="checkbox"/> 아태지역 정부 공무원, 국제기구 관계자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			
경비부담	약 4,093,000원			
주최기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출장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Asian and Pacific Conference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Beijing+20 Review’ 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 Segment) 참관 ▪ 부대행사(Side Event) 참관 ▪ 특별세션(Special Session on ICT, e-Government and Women's Empowerment) 참관 <input type="checkbox"/> 국제교류 네트워킹을 통한 본원과의 향후 협력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 Cai Cai (Chie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Section, Social Development Division, UN ESCAP) ▪ Ms. Roberta Clarke (Director, UN Women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 Ms. Sonomi Tanaka (Lead Gender Specialist, Asian Development Bank) 등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출장 복명서

UN ESCAP 주최

‘Asian and Pacific Conference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Beijing+20 Review’
참관을 위한 해외 출장 복명서 (2014. 11. 16 - 11. 19)

2014.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개 발 협 력 팀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UN ESCAP 주최
‘Asian and Pacific Conference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Beijing+20 Review’
참관을 위한 해외 출장 복명서

I

출장 개요

□ 출장 배경 및 필요성

- 2015년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기한이자, 북경행동강령 20주년(베이징+20)이 되는 해인 만큼, 현재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이후(Post-2015)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 구성과 북경행동강령 이행 점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UN ESCAP 본 회의가 2015년 여성지위위원회(CSW)의 아태지역 사전모임 성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시민사회(CSO) 회의(2014. 11. 14- 16)와 정부회의(2014. 11. 17- 20)가 병행하는 시점에 본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음을 확인하였음. 본 회의 참관을 통해 향후 한국의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 및 베이징+20에 관한 이해제고와 이행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출장 목적 및 일정

□ 출장 목적

- 아태지역 국별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한 UN ESCAP 설문조사 결과 자료 수집
- Post-2015 개발의제와 젠더이슈에 관한 UN의 최근 동향과 자료수집
- 아태지역 정부 공무원, 국제기구 관계자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

□ 일정, 장소 및 출장자:

- 일정: 2014. 11. 16(일) - 11. 19(수) [2박4일]
- 장소: 태국 방콕
- 출장자: 김은경 국제개발협력팀장, 이수연 평등문화정책센터장, 곽서희 연구원

일자	세부내용	장소
11.16 (일)	○ 김은경 국제개발협력팀장, 이수연 평등문화정책센터장, 곽서희 국제개발협력팀 연구원 출국 (KE 659, 서울 18:50 → 방콕 22:55)	서울→ 방콕
11.17 (월)	○ UNESCAP 회의 1일차 참석	방콕
11.18 (화)	○ UNESCAP 회의 2일차 참석 ○ 귀국 (KE 652, 방콕 22:45→서울)	방콕
11.19 (수)	○ 도착 (서울 05:50(+1))	방콕 →서울

1. 2014. 11. 17(월)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 Segment)

□ 회의 개요(Overview of the Conference)

– 본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언급할 수 있음:

- ① 과거 북경행동강령 이행 리뷰
- ② 향후 성과달성 가속화
- ③ 글로벌 차원에서의 북경+20 검토 준비

□ 아태지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과제에 대한 리뷰(Review of the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in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UN ESCAP은 아태지역 지역차원의 이행 성과 및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정부간 조사(Intergovernmental Survey)를 실시함. 지역차원의 조사 결과, 주요 성과도 나타났지만 과제(challenges)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과 및 과제의 세부 분야는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함.



□ 부대행사(Luncheon Side Event on Women with Disability)

- 네팔, 파키스탄 등 장애여성으로 살아가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활동 내용, 애로사항,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함.



□ 아태지역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한 장관급선언 초안(Draft Asian and Pacific Ministerial Declaration on Advanc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¹ 최종 수정

선언문 내 서문(preamble) 및 전반적 내용 관련

- 진행방식: 장관급 선언 총 51개의 문단 별로 국가 정부 대표단측의 합의, 유보, 수정의견 등을 취합하고 UN ESCAP 측이 이를 수정 및 반영함.
- 일부 문단은 별다른 수정 없이 합의에 이르렀으나, 장관급선언에 수정할 문구 및 단어에 대해, 국가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음. 예를 들어 필리핀은 인권보호 및 차별철폐 대상에서 sex, gender, race 등 보다 세부적인 문구들의 추가를 주장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일부 문단에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추가를 주장함. 반면 러시아에서는 장관급선언 전반에 sex, gender 둘 다 포함되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란, 파키스탄 등 역시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와 같은 문구가 반영

¹ 아태지역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한 장관급선언 초안은 UN ESCAP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unescap.org/resources/draft-asian-and-pacific-ministerial-declaration-advancing-gender-equality-and-women%E2%80%99s>

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음.

2. 2014. 11. 18(화)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 Segment)

□ 아태지역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한 장관급선언 초안(Draft Asian and Pacific Ministerial Declaration on Advanc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최종수정

★ 11. 17(월) 고위급회의 1일차에 이어 진행됨.

- 보건분야에서 성, 생식보건 관련 문구 수정여부에 대해 찬반 입장이 양분되었음. 필리핀은 출생(birth attendance) 및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이라는 문구를 보다 명시할 것을 제안함. 마셜군도는 재생산(reproductive) 단어 삭제를 제안하였고, 파키스탄은 가족계획(family planning) 단어 삭제, 러시아는 성적 권리(sexual rights) 삭제를 제안함.
- 여성대상 폭력 관련 부분은 별도의 이견 없이 바로 합의되었음.
- 여성과 안보, 평화에 대한 수정 제안도 활발하게 진행됨.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국에서 비공식분야(informal economy)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이주여성노동자 부분을 세부적으로, migrant women workers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필리핀은 인신매매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 이행을 강조하며, mechanisms designed to eliminate demand for trafficking and for effective라고 구체화 할 것을 하였음(문단 37).
- 권력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부분은 별도의 이견 없이 바로 합의되었음.
- 여성 발전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에서도 별도의 이견은 나타나지 않았음.
- 여성과 미디어 관련해서는 필리핀이 여성의 인터넷, 모바일 휴대폰 제공자 측이 여성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네팔이 여성의 미디어 문해율(media literacy) 증진할 것 문구 추가에 대해 제안하였음(문단 44).
- 기후변화, 재난, 환경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몽골, 방글라데시 등은 climate change and disasters 문구 추가를 제안하였음(문단 46).
- 여아와 관련해서는 가사노동(domestic work)뿐만 아니라, 아동 성 불균형(child sex ratio imbalance) 아동노동(child labor), 청소년임신(teenager pregnancy) 등 여러 추가적인 문구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찬성, 반대 국가들이 양분되어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

었음(문단 49).



❑ 특별세션(Special Session on ICT, e-Government and Women's Empowerment)

- 여성은 ICT 기술의 혜택, 접근성에 있어 남성 다음의 부차적(secondary) 위치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ICT 및 젠더와 관련된 운동가, 여성 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함.

